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EBS 뉴스, and various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shows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EBS 뉴스, 시사토크, and various news and talk sh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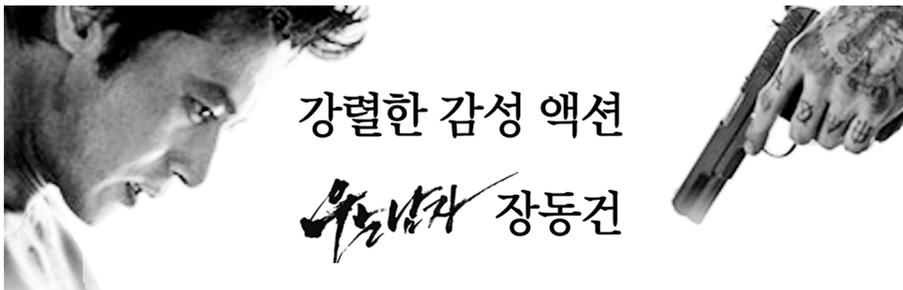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4일(음 5월 7일 丙午)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date June 4th, 2014,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강렬한 감성 액션

우울함의 장동건

“13년만의 누아르 ... 우울함의 결정판이죠”

흑사회 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소유한 킬러. 한치의 망설임 없이 총을 빼들고 상대를 사살하고, 총알 세례 속에서도 과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한다.

마흔을 넘긴 두 자녀의 아버지지만 구르고 뛰고 싸우는 액션을 온몸으로 소화했다. 이정범 감독이 연출한 ‘우는 남자’에 출연한 배우 장동건 얘기다. 장동건이 액션 누아르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는 건 ‘친구’(2001) 이후 13년 만이다.

사실 액션 영화는 그에게 친숙한 장르다. ‘무극’(2005)과 할리우드 진출작 ‘워리어스 웨이’(2010)에서는 천하제일의 검술을, ‘태극기 휘날리며’(2003)와 ‘마이웨이’(2011)에서는 전쟁터에서 총을 난사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우는 남자’에서는 전선에 투입된 병사와는 다른 충격 장면을 선보인다. 장동건이 맡은 킬러 곤과 흑사회에서 온 삼인방이 아파트에서 겨루는 총격 장면에선 수백 발의 총알이 스크린 이곳저곳을 헤집는다.

“마이웨이” 때보다 더 많은 총탄을 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을 사용하는 장면은 여러 영화에서 찍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능숙하게 총을 다루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웠어요. 총을 쏘 때 눈은 깜빡이지 않고자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보면 인물들이 생동하게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는 장면들이 있던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는 난도 높은 액션 장면을 소화하고자 강도 높은 훈련도 했다. 매일 액션 스톱에 도착해 약 3.5km의 거리를 달렸고, 발차기를 했다. 무술 감독과 다양한 합도 맞췄다. 훈련에 들어가면 4~5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그렇게 4개월 반을 연습했다.

“처음 한 달은 많이 힘들었어요. 기존 액션 영화에선 통상 2~3주 정도 훈련했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이 가장 많은 시간을 훈련에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용 4~5년간 쉬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화에서 그는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신이 죽인 여아의 엄마 모경(김민희)을 지키려 한다. 조직을 배반하면서까지 과연 그 래야 했을까, 의문이 솟구친다. 좀 더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영화로 만들면서 충분히 했어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곤이 버림받는 플래시백 장면이 오프닝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프닝의 소지가 있었죠. 곤이 왜 버려졌는가가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경을 구하려는 이유는 모경의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엄마 때문이에요.”

김정태, 아들 ‘야꿍이’와 선거 유세 논란

“죄송하고 매우 안타깝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로 인기가 쏠린 배우 김정태 부자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선거유세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야꿍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그의 4세 아들 지후 군이 후보자 홍보에 동원된 듯한 인상을 줘 비난이 나온다.

이에 김정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코 정치적으로 아이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논란이 되었던 유세 행사에 야꿍이가 원치않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 것 같아 야꿍이를 사랑해주는 분들께는 죄송하고 본인으로써는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새누리당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후보 측은 블로그를 통해 “야꿍이와 야꿍이 아빠와 함께하는 나동연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나 후보 측은 “너무나 귀여운 야꿍이의 인기가 나동연 후보자와 아빠 김정태는 뒷전으로 밀렸는데, 야꿍이 덕분에 양산 시민 여러분들이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인터넷에서 이미 퍼져나간 상태.

김정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어린이 재단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저만 참석하기로 한 행



사”라면서 “가볍게 부인과 야꿍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후보를 만나고 가족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스के줄이어서 매너지도 없이 갖다가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 결코 정치적으로 아이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KBS 기자협, ‘방송법 위반’ 혐의 길환영 사장 고발

KBS 기자협회는 3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BS 기협은 고발장에서 길 사장과 이수석,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3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규제, 간섭하며 방송 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직으로 길 사장에 지시하는 방법으로 KBS 방송편성을 규제, 간섭해온 사람이다.

KBS 기협은 고발 근거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들었다.

KBS 기협은 “길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 등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기자회권과 사내 조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청와대 지침이나 정치권 압력을 받아 보도에 개입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대 노조와 기협은 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사퇴한 보도본부 부장 6명이 전날 지역방송총국 평가자로 발령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